

근대적 자서전과 시적 고백

루쏘, 워즈워스, 엘리엇

박찬길

1. 근대적 자서전의 전통—— 오거스틴과 루쏘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서전(自敘傳, autobiography)은 작가 자신이 스스로를 주제로 삼아 쓴 전기(傳記, biography)이다. 전기는 전기작가, 즉 화자(話者, narrator)가 전기의 주인공(protagonist)의 삶을 하나의 역사적 기록(historical record)으로 재구성하는 것인데, 자서전의 경우에는 그러한 재구성의 주체인 화자와 재구성의 대상인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서전은 전기의 경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한 자료에 입각하여 씌어진 충실한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그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의심받기 쉽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역사적 기록은 역사가의 주

* 본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과제연구비의 지원을 받음.

朴贊吉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최근 논문으로 「정보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서양인문학의 이념과 과학주의의 도전」(2000)이 있다.

관적 관점으로 ‘만들어진’ 기록에 불과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서전은 화자의 주관성을 벗어나기가 특히 어렵다는 것이다. 화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다 해도, 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모방’(imitate)하거나 ‘재현’(represent)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상상’(imagine)한 것인지 혹은 ‘투사’(project)한 것인지 화자 자신도 알기 어렵다. 그 때문에 자서전은 형식상 하나의 사실적 기록이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종류의 비사실적 문헌들을 그 영역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어떤 문학작품이든 그 내용에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문학이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전기가 한 개인의 ‘삶’(life)을 기록한다고 할 때, 과연 ‘삶’이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있어서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거리와, 자서전의 경우에는 그 ‘삶’이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하여 자서전을 쓰고 있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자서전적 기술의 대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명쾌하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전기의 경우는 대개 완결된 삶을 대상으로 삼고, 화자의 관점을 그 삶 외부에, 혹은 이후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서전의 경우는 아무리 해도 그 ‘삶’의 ‘외부’에 관점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자서전을 쓰기 직전까지의 삶을 완전하게 담아낸다 해도 그 글을 쓰는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의 경험이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자서전을 ‘완성’하기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에 의해서 서술의 관점이 달라지는 만큼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서전이 야기하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자서전을 역사적 기록의 한 종류로나 혹은 하나의 문학적 양식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¹⁾

1) Paul de Man, "Autobiography as De-facement," *MLN* 94 (1979) 919~21면; Paul Jay, *Being in the Text: Self-Representation from*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자서전을 일정한 글의 종류나 양식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에나 어느정도 발생하게 마련인 읽기 혹은 이해에 대한 비유”라고 한 뿔 드만의 진술이 차라리 더 견실한 정의일 수도 있다.²⁾ 자서전을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글의 한 종류로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인식론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파악하는 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자서전을 성립시키는 조건에 대한 그의 성찰은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을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³⁾

Wordsworth to Roland Barthes (Ithaca: Cornell UP 1984) 13~38면 참조. 이 글에서는 자서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서전 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제임스 올니(James Olney)에 빚진 바가 많다. 올니는 자서전을 “질서를 지향하는 강력한 충동”으로 이해하면서 작가의 의식과 외부 세계가 ‘은유’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존재를 상호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etaphors of Self: The Meaning of Auto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P 1972) 3~48면 참조. 올니의 견해에 대한 해체주의적 비판으로는 Candice Lang, “Autobiography in the Aftermath of Romanticism,” *Diacritics* 12 (1982) 2~16면 참조.

2) de Man, 같은 글 921면.

3) 드만은 ‘자서전적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상호간에 반사(反射)적 교체를 통하여 서로를 결정하는 읽기의 과정에 개입된 두개의 주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발생된다. 그 구조는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별성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그 두 주체는 주체를 구성하는 교체적 교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울구조는 저자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이해의 주체라고 선언하는 텍스트에 내면화되어 있다. ... 이 거울구조가 작동하는 순간은 일차적으로 역사 속에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지시물(the referent)의 차원에 있는 언어학적 구조의 한 표현이다. 그 순간은 모든 이해의 한 부분이며 자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각작용 이면에 깔려 있는 비유적 구조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자서전의 관심사는 자기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비유적 교체로 이루어진 모든 텍스트 체계의 봉쇄(closure)와 총합(totalization)이 불가능하다는 점(즉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de Man, 같은 글 921~22면).

드만의 자서전론은 자서전이 작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구조’

그러나 자서전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하든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의 이론이나 정의보다는 고전적 범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더 유용하다. 서구 자서전 문학의 단초를 이루는 성 오거스틴(St. Augustine)의 『고백록』(*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은 이후에 나온 다양한 자서전들과 자기고백적 문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의 관심사인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의 확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톨릭의 고해성사나 간증의 원조라고 해도 좋을 이 자서전의 주인공은 여러가지 도덕적 결함을 가진 자였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니교에 경도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드는 등 방황을 거듭하다가 8권에서 갑작스런 ‘깨달음’을 경험한 후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갱생한다. 오거스틴의 자서전은 기독교적 역사관과 인류의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개인의 역사’보다는 한 개인에게 원형적으로 구현된 인류의 역사로서의 의의가 더 크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최초의 자서전인 이 작품에도 이미 그 이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자서전과 자기고백적 문학의 구조적인 특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우선 이 작품은 드만이 말하는 두 인식 주체,

속에서 작가 자신에 대한 믿을 만한 ‘사실’을 드러낸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근대적 자서전의 구조적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다. 자서전에는 두개의 주체가 서로를 ‘읽는’ 거울구조가 있으며, 그것들의 상호 반사적 인식 작용이 바로 자서전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해체론자인 드만에게는 당연하게도 그러한 ‘읽기’의 결과가 두 자아의 통합이나 정체성의 확립으로 귀결하는 것은 아니다. 자서전이 결국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의 형성의 불가능성을 입증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서전이 흔히 전제하는 ‘성장’의 논리를 반박하고 뒤집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많은 자서전들이 단순히 역사적 체험의 축적을 자아의 ‘성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일거에 뛰어넘는 초월의 경험을 ‘성장’의 계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성장’의 현재적 의미도 글을 써내려가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말하는 “봉쇄와 총합의 불가능성”은 의미확정의 불가능성이라는 해체주의적 명제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대적 자서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즉 오거스틴을 나타내는 두 자아가 서로를 읽는 ‘거울구조’로 되어 있다. 이후의 다른 자서전이 그러하듯이 현재의 ‘화자’는 과거의 ‘주인공’과 구분되어 서로를 ‘상호 반사’한다. 과거의 주인공의 관점이 오거스틴의 삶을 역사주의적 모델로 묘사한 1권에서 9권까지의 내용을 관장한다면, 현재 화자의 관점은 10권에서 14권까지의 철학적인 명상을 뒷받침한다. 전자가 ‘삶’에 대한 역사적이고 통시적인(diachronic) 해석을 유도한다면, 후자는 비역사적이고 공시적인(synchronic) 해석을 실천한다.

오거스틴의 『고백록』이 보여주는 또하나의 근대적 특성은 두 자아의 ‘통합’과 ‘분리’를 동시에 매개하는 ‘개종’(conversion)의 경험이다. 서른두살이 되던 386년에 오거스틴은 그동안의 방황과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가 앉아 있던 곳으로 급히 되돌아갔다. 내가 일어나 그를 떠났을 때 그곳에 사도신경을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뉘아쳐서, 책장을 폈다. 그리고 내 눈길이 처음 가닿은 장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진정으로 이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을 때 마치 어떤 평화로운 빛줄기가 내 가슴속으로 밀려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모든 의심의 검은 그림자가 말끔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⁴⁾

현재의 화자는 이렇듯 인상적인 순간에 대한 ‘회고’(recollection)와 ‘재구성’(recapitulation)을 통하여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주인공이 성장하여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두 자아의 ‘통합’을 도모한다.⁵⁾ 그러한 ‘통합’은 신앙을 통한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이 작

4) St. Augustine,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trans. John K. Ryan (New York: Image Books 1960) 202면. 인용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

품의 목적과 관련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메씨지이다. 그러나 화자의 은밀한, 어쩌면 더 근본적인 욕망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자아의 ‘개종’이 초래한 두 자아의 ‘분리’는 절대적이다.⁶⁾ 그것은 그 ‘분리’의 결정적 계기였던 개종이 자서전 내부의 논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이며,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거스틴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아가 희망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의 확립도 기본적으로는 성서가 제시하는 보편적 인류의 역사를 모델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개종이라는 결정적인 단절의 계기에도 불구하고 두 자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서가 제시하는 보편역사의 모델이 사라지고, 신의 피조물로서 모든 인류가 공유한 보편적 인간성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현재의 화자와 과거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의 맥락에서도 모순과 갈등, 분리와 소외를 겪는다.

이 글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근대적인 자서전은 보편적 인간성과 인류의 보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생겨났고, 그 가장 극적인 표현은 루소(Jean J. Rousseau)의 『고백록』(*The Confessions*)이다.⁷⁾

5) George Gusdorf, “Conditions of Limits of Autobiography,”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ed. James Olney (Princeton: Princeton UP 1980) 38면.

6) William C. Spengeman, *The Forms of Autobiography: Episodes in the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P 1980) 14면.

7) 웨인트롭(Karl J. Weintraub)은 근대적인 의미의 자서전이 시작된 것은 서구의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1800년대쯤부터라고 주장한다. “Autobiograph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Critical Inquiry* 1 (1975) 821면.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809년 싸우디(Robert Southey)가 포르투갈 문학에 대한 한 논문에서 autobiography라는

루소는 그의 『고백록』의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나의 목적은 내 동포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질에 충실한 하나의 초상화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단지 나 자신뿐이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만 나는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나는 그들보다 잘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과 다르기는 하다. 자연이 나를 빚을 때 사용한 거푸집을 부숴버린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내 책을 읽은 다음에야 답할 수 있다.⁸⁾

루소는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기술하고자 하는 자아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자기 자신만이 가장 정확하고 깊게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나 자신의 마음”이고, 이것은 자기가 아는 한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서전을 쓰는 데 있어서 저자의 관심은 오로지 그러한 특이성을 “본질에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있을 뿐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느님이 그것을

말을 처음 썼고, 실제 autobiography가 처음 씌어진 것은 1834년에 간행된 스카길(W. P. Scargill)의 *The Autobiography of a Dissenting Minister*라고 한다. Olney, *Autobiography*, 5면. 19세기 초반에 새로운 자서전을 요구했던 근대적 인간의 자기인식을 구스도프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가 과거와 다르고, 또 현재가 미래에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을 더 잘 의식하고 있다. 계속적인 변화와 사건과 인간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image)을 확정하는 것이 유용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역사는 형태와 존재들의 파괴와 맞서 싸우며 예측할 수 없는 목표로 돌진하는 인류에 대한 기억이 될 것이다. 각 개인은 세상에 중요하다. 각각의 삶과 각각의 죽음이 제각각 다 중요하다. 스스로의 삶을 각자가 목격하는 것은 공동의 문화유산 을 풍요롭게 한다.” G. Gusdorf, 앞의 글 30~31면.

- 8) Jean J. Rousseau, *The Confessions*, trans. J. M. Cohen (Harmondsworth: Penguin 1953) 17면.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것임.

어떻게 심판하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어떠한 외부적인 기준에 기대어 이해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고백록』을 쓰기 시작하는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루쏘 자신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자서전을 쓰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의미를 탐색하고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쏘의 자서전은 삶의 목표(telos) 혹은 최종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며, 화자가 자서전을 이끌어가면서 행하는 ‘회고’와 ‘재구성’은 사실의 집대성이나 미리 계획된 언술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발견적(heuristic)이고, 수행적(performative)이며, 해석적인(hermeneutic) 과정이며, 삶을 단지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한다.⁹⁾

루쏘의 『고백록』의 화자는 때로는 치사할 정도로 자기옹호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당대 사회의 기준에 맞춰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여러 국면에 대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루쏘가 자기고백을 통해 의도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주관적인 자아를 구축해내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루쏘의 자서전은 확정된 삶의 의미나 목표로 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거스틴의 『고백록』처럼 목적론적 이야기가 아니며,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주인공의 경험을 충실하게 재현하지만 주인공이 요구하는 통시적 정합성보다는 화자의 공시적 해

9) 올니는 자서전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자아의 기념비, 자서전을 쓰고 있는 순간의 자아에 대한 은유”이며, “자아는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고 투사한 은유에 의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우리는 그 은유에 의해서만 자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서전을 수행적이고 해석적으로 이해한다. “A Theory of Autobiography,” *Autobiography*, 34~35면. 구스도프 역시 근대적 자서전의 특징을 자서전의 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으로 본다. “모든 자서전은 그것이 기술하는 삶의 한 순간이다. 그것은 그 삶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그 자신이 그 삶의 의미이다.” G. Gusdorf, 앞의 글 43면.

석이 훨씬 더 중요한, 발견적이고 수행적 성격이 강한 글쓰기의 소산이다.

루소의 화자가 수행하는 ‘회고’와 ‘재구성’이 가져온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허망한 것이다. 화자는 『고백록』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술회한다.

나는 이렇게 나의 낭독을 끝냈다. 그리고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예그몽 부인만이 감동한 것 같았다. 그녀는 눈에 띄게 몸을 떨었지만, 곧 자제하고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이것이 내가 나의 낭독과 선언으로 얻어낸 소득이었다.¹⁰⁾

루소가 『고백록』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타인들의 공감이나 그들과의 재통합이 아니라 그들로부터의 완전한 소외와 분리였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은 오거스틴처럼 신과의 신비로운 만남도 아니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공감도 아니었다. 주인공의 시련과 고통은 그를 영혼의 성장과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악의 심연”¹¹⁾으로 몰아넣었고, 이것은 그의 자서전이 주인공과 화자를 통시적/역사적 관련 속에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공시적 해석을 통하여 그 역사적 연관을 부인하고 단절시키려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화자의 ‘회고’와 ‘재구성’이 과거를 현재와 역사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재구성’된 과거의 특정한 순간이 화자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를 ‘퇴영’(regression)적 몽상에 빠지게 한다.¹²⁾

『고백록』에 담긴 루소의 삶이 현저하게 활기와 생동감으로 넘치는 것은 그의 나이가 열아홉살이었던 어느 날 있었던 두 처녀와의 우연한

10) J. J. Rousseau, 앞의 책 606면.

11) 같은 책 544면.

12) Stephen Frosh, *Identity Crisis: Modernity, Psychoanalysis and the Self* (London: Macmillan 1991) 63~94면.

피크닉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새벽에 산책을 나왔던 루소는 말을 타고 개울을 건너려는 아름다운 처녀 두명과 마주친다. 그들을 도와준 루소는 함께 피크닉을 떠나 꿈같은 하루를 보내게 된다. 10대 소년의 미숙한 정열로 가슴 졸이며 처녀들과의 육체적 접촉을 감미롭게, 그리고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한 후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하루가 끝나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라는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함께 보낸 하루를 가득 채웠던 그 즐거운 추억들로 그 하루를 길게 만드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들을 만났던 거의 같은 지점에서 그들과 헤어졌다. 우리는 얼마나 아쉽게 헤어졌던가!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시 만나길 기약했던가! 함께 했던 열두 시간은 친밀하게 보낸 몇 세기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였다. … 그 하루의 기억이 내가 평생 동안 맛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더 매력있게, 더 자주 내게 떠오른다.¹³⁾

화자는 주인공의 경험을 주인공이 화자로 발전해나가는 역사적 계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충만한 순간으로 규정하며, 그에 대한 화자의 강렬하고 긴밀한 기억을 통하여, 설명이 불필요한 자족의 순간을 화자의 글쓰기 공간에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주인공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고립의 경험이 가져온 “악의 심연”에서 화자를 구해주는 것은 화자의 자서전 쓰기 자체를 통해 구현되는 즐거움의 기억이다.¹⁴⁾

여기에서 루소가 지난 하루를 회고하는 방식은 그의 자서전 쓰기의 역학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루소의 화자는 현재의 자아를 과거의 경험의 역사적 산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고, 퇴영적 회고를 통하여 시간

13) J. J. Rousseau, 앞의 책 135~36면.

14) Elizabeth de Mijolla, *Autobiographical Quests: Augustine, Montaigne, Rousseau, and Wordsworth* (Charlottesville and London: UP of Virginia 1994) 104면.

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쾌락의 경험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일종의 낭만적 초월의 경험으로서 화자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루소의 자서전은 이처럼 근대적 자아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즉 역사적 실존의 한계를 뚫고 어떻게 그 주관성(subjectivity)을 획득하는가를 잘 보여준다.¹⁵⁾

루소의 『고백록』에서 그 전형적 형태를 획득한 근대적 자서전은 한 개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정하는 상호 규정적 인식론, 드만의 표현으로는 “상호 반사적 인식 작용”을 그 형식적 구조에 내면화하고 있다.

2. 낭만적 초월과 근대적 자서전: 위즈워스의 시학과 『서곡』¹⁶⁾

에이브럼즈(M. H. Abrams)의 지적대로 위즈워스의 자서전 기획은 정신적 성장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오거스틴의 자서전의 모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¹⁷⁾ 그의 자서전은 “시인의 영혼의 성장”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은둔자』(*The Recluse*)라는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담은 철학시를 쓰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서곡』(*The Prelude*)의 화자는 그러한 궁극적인 진실을 전달할

15) Gerald N. Izenberg, *Impossible Individuality: Romanticism,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Modern Selfhood, 1787~1802* (Princeton: Princeton UP 1992) 3~17면.

16)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1799, 1805, 1850*, ed. Jonathan Wordsworth, M. H. Abrams, and Stephen Gill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9).

17) M. H. Abrams, *Natural Supernaturalism: Tradition and Revolution in Romantic Literature* (New York: Norton 1971) 73~140면.

만한 화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은 “소명받은” 시인의 자서전을 써야 할 필요를 뜻하는 것이었다. 오거스틴의 신 대신에 자연을 따르는 워즈워스의 화자는 처음부터 자연의 섭리에 의한 영혼의 성장이라는 수사법을 시종일관 견지한다. 그 유명한 ‘보트 훔치기’ 일화를 비롯한 어린 시절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은 자연이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공포’의 체험을 통해서도 주인공의 영혼을 성숙시켰음을 보여준다. 자연의 섭리와 그에 힘입은 영혼의 성장은 『서곡』보다 먼저 씌어진 「틴턴 사원」(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 July 13, 1798)¹⁸⁾에서도 주장된다.

그런 시절은 갔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픈 즐거움도
그리고 그 모든 아찔한 환희도 더이상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슬퍼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다. 다른 선물들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런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자연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철없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가끔씩
인간에 대한 조용하고 슬픈 노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큰 힘을 가졌으면서도
거칠거나 거슬리지 않는 그런 노래를 들으며. (83~92행)

이러한 화자의 정신적 성장은 「틴턴 사원」에서 화자의 회고적 서술 자체에서 재현되는 자연과의 황홀한 결합의 체험(35~48행)이나 어린 시절에 경험된 다양한 자연을 추체험(58~83행)하는 것으로 뒷받침되지만 어쩐지 그러한 성장의 논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¹⁹⁾ 이것

18) William Wordsworth,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don: Longman 1992) 205~214면.

19) 박찬길 「워즈워스와 코올리지」, 영미문학연구회 편 『영미문학의 길잡이 1』(창작

은 주인공의 체험을 화자로의 성장을 담보하는 역사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전통적 자서전의 논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 대한 위즈워스의 자각이 『서곡』과 같은 더 큰 규모의 자서전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곡』이 자서전으로서 갖는 설득의 심층 논리는 「틴턴 사원」의 역사주의적 모델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²⁰⁾

『서곡』에 대한 최초의 원고에 의하면 『서곡』의 시작에서 설정된 화자는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큰 힘”을 받아들인 “성장한”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루소의 『고백록』의 결론에서처럼 암담하고 허탈한 패배자이다.

이것을 위해서였는가?

모든 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내 유모의 노래에 자신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섞어넣은 것이?

오리나무 그늘과 낭떠러지 폭포에서,

얕은 여울과 시내에서, 내 꿈속으로 흘러들어온 그 목소리가

보내진 것이? (1권 269~74행)²¹⁾

위즈워스가 오거스틴이나 루소와 다른 점은 처음부터 화자와 주인공

과비평사 2001) 288~94면.

20) 「틴턴 사원」은 『서곡』의 원고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씌어지긴 했지만, 원고상으로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곡』의 화자가 「틴턴 사원」의 화자로부터 발전된 자서전적 화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작품을 낭만적 자아의 자서전으로 연관시킨 글로는 Eugene L. Stelzig, “Presence, Absence, and the Difference: Wordsworth’s Autobiographical Construction of the Romantic Ego,” *Wordsworth Circle* 16호 3권 (1985) 142~45면 참조. 두 작품의 집필 시기와 경위에 관해서는 Mary Moorman,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Oxford UP 1968) 401~33면 참조.

21) 『서곡』의 본문 인용은 모두 1805년 판본에 의함.

간의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제 안정을 주는 정신이
나의 육체적인 형체를 내리누르고,
나와 그 시절, 아직도 내 마음에 분명히 자리잡은
그 시절간의 공간이 너무도 넓어 보인다.
그리하여 때때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두개의 의식인 것 같다. 하나는 나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다른 존재인 것 같다. (2권 27~33행)

워즈워스는 『서곡』에서 이러한 ‘두개의 의식’을 성장의 논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노우돈(Snowdon) 일화에서 보름달의 모습을 “강력한 정신의 완벽한 이미지”로 해석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성공했음을 선언한다(13권 10~119행). 이러한 선언을 믿어도 좋은가? 그것은 「틴턴 사원」 화자의 호연장담과 무엇이 다른가?

『서곡』에서 워즈워스가 구사하는 자서전의 논리는 그 역사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루쏘적이다.²²⁾ 『서곡』의 화자도 오거스틴의 화자의 ‘정원 에피소드’처럼 신비로운 깨달음의 체험을 하지만(자기도 모르게 알프스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상상력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되는 ‘썸플론 고개 에피소드’ 6권 488~548행), 그러한 깨달음의 의미가 화자의 성장과 맺는 관계는 모호하다. 『서곡』에서 화자를 ‘하나의 정신’(One Mind)의 소유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더 중요한 근거는 이른바 ‘시간의 점’(Spots of Time)이라는 과거의 경험이다.

우리의 존재에는 시간의 점들이 있다.

22) 루소의 『고백록』이 워즈워스의 『서곡』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W. J. T. Mitchell, “Influence, Autobiography, and Literary History: Rousseau’s *Confessions* and Wordsworth’s *The Prelude*,” *ELH* 57 (1990) 643~64면 참조.

그것은 분명하게 돌출되어
 활기를 주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릇된 의견과 논쟁적인 생각들로,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인 무게를 가진 어떤 생각들로,
 사소한 일거리들, 그리고 일련의 일상적인 교류들로 하여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양분을 주고, 어느새 회복시키는 그런 미덕을. (11권 208~14행)

루쓰가 하루 동안의 황홀한 피크닉을 자신의 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
 는 경험으로 해석했듯이 위즈워스의 화자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의 점’들을 ‘회고’한다. ‘시간의 점’이라는 용어는 시간의 흐름을
 선형으로 파악하는 관습적인 시간관을 떠올리게 하지만 위즈워스의 화
 자가 실제의 ‘점’들을 ‘회고’하는 방식은 루쓰가 그러했듯이 탈역사적이
 다. 화자는 그러한 ‘시간의 점’을 찾아 여섯살에 겪었던 일을 회고한다.
 제임스라는 하인과 말을 타고 나갔던 주인공은 우연히 일행과 헤어진
 후 혼자서 헤매다가 옛날에 교수대로 쓰던 곳에서 그곳에서 처형된 자
 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와 마주친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비틀거리면서 마침내
 나는 푸른 잔디에 새겨진 그 글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 황량한 언덕빼기를 다시 오르면서
 나는 언덕 아래 놓여 있는 혈벗은 샘물과
 언덕 꼭대기의 봉화대, 그리고 더 가까이에선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아가씨를 보았다.
 그녀는 세찬 바람을 거슬러
 발걸음을 어렵사리 내딛고 있었다. 진정으로 이것은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몽상적인 황량함을 그리기 위해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색깔과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안내인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는 동안
 그 혈벗은 샘물과 외로이 솟아 있는 봉화대와,

강한 바람에 부대끼며 곤란을 겪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옷,
 그 모습들에는 그러한 몽상적인 황량함이 깃들여 있었다.
 내 마음에 그토록 가까웠던 두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축복받은 시절,
 어린 시절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때였다.
 그건 그 일이 일어난 지 한참 후였는데, 나는 바로 그 장소를
 매일같이 쏘다녔다. 햇빛은 샘물과 황량한 바위언덕과,
 우울한 봉화대에는
 즐거움의 정신과 젊은이의 금빛 광채가 깃들여졌다.
 그 기억들과 그것이 남겨놓은 힘에서
 더욱 신성한 광채가 비친다고 생각지 않는가?
 그렇게 한 감정에 또다른 감정이 생겨나 돕고,
 다양한 힘들이 우리를 따라온다.
 우리가 한때 강했던 적이 있었다면. (11권 300~28행)

여섯살짜리 주인공이 죽은 사형수들의 이름을 새긴 ‘글자’들을 보고 무
 엇을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글자’의 물질적인 실존은 주인
 공의 실존 훨씬 이전에 속하고 글을 모르는 주인공에겐 그 ‘글자’가 지
 시하는 현실은 어차피 추상일 뿐이다. 화자가 ‘회고’하는 것은 그 ‘글자’
 의 의미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주인공의
 눈에 비친 광경과 그에 따르는 감정이다. “햇빛은 샘물”과 “봉화대” 그
 리고 ‘세찬 바람을 거슬러 걸어가는 물동이 인 아가씨’의 광경은 주인
 공이 방금 목격한 ‘글자’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인을 잃고 방
 황하던 주인공의 소외감과 두려움의 맥락에서 텍스트상에 “몽상적인
 황량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그 “몽상적인 황량
 함”에는 화자가 “햇빛은 샘물”과 “봉화대” 그리고 “물동이 인 아가씨”
 의 이미지를 ‘회고’하면서 그 ‘글자’와 이미지들을 다른 맥락에서 저질
 러진 인간의 죄와 벌에 새롭게 연관지어 해석한 결과가 의미심장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살짜리 주인공이 본 “샘물”과 “봉화대”는 여섯살 때보다는 훨씬 후이지만 글을 쓰는 화자의 시점보다는 훨씬 이전의 어떤 시기에 속하는 또다른 주인공에 의해 본래와는 정반대의 감정적 맥락에서 새롭게 체험된다. 같은 장소의 같은 광경은 이제 소외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따스한 애정과 결속감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체험되며 본래의 맥락에서는 “헐벗은 샘물”과 “우울한 봉화대”였던 것들이 이번에는 “즐거움의 정신과 젊은이의 금빛 광채”를 불러오는 것이다.

화자는 세계의 다른 시점(사형수의 죄와 벌에 관한 ‘글자’의 의미가 분명했던 때, 여섯살짜리 주인공이 ‘글자’를 발견했을 때, 어른이 된 주인공이 매일 그 지점을 돌아다녔을 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간의 점’들에 각인된 ‘글자’와 ‘이미지’의 의미를 다양하게 읽어낸다. 화자의 ‘회고’, 즉 적극적인 과거 읽기에 의해 ‘글자’나 ‘이미지’의 역사적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 화자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주인공의 경험을 새롭게 읽어내는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경험의 사실적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회고’할 때 얻어지는 새로운 경험, 즉 그것에 따르는 ‘감정’이다.

이처럼 역사를 넘어서는 화자의 ‘회고’는 그의 유명한 『『서정담시집』 서문』(Preface to *Lyrical Ballads*)에서 “어떤 행위와 상황이 중요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때문이지, 행위와 상황에 감정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의 기원은 평온함 속에 되새겨진 감정”이라는 새로운 낭만주의 시학으로 이론화된다.²³⁾ 『틴틴 사원』 이후 최초로 씌어진 『서곡』 판본인 『양장서곡』(*The Two-Part Prelude*)에는 역사를 초월하는 ‘회고’의 기체에 대한 짙막한 구절이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익사체의 끔찍한 모습을 목격한 일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 W. Wordsworth, *Lyrical Ballads*, 64, 82면.

나는 여러가지 사고들……
 향토사에 나오는 비극적 사실들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훗날
 아주 다른 감정들이 결부되어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이미지들로 존재하며
 마치 그 원형들처럼, 쇠퇴할 줄 모르는 형태로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 (2권 283~87행)

이러한 이미지와 형태들은 자서전의 화자가 주인공의 삶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공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이 얻어지는 초역사적 경험이며 이것은 위즈워스가 자서전 쓰기를 통해 구성하는 낭만적 자아의 내용이 된다.²⁴⁾

3. 몰개성적 자아와 자서전: 엘리엇의 「제이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와 「리틀 기딩」²⁵⁾

근대적 자서전에서 형성되는 자아를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주인공의 삶에 대한 ‘회상’과 ‘재구성’을 통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24) 케언즈(Sheila M. Kearns)는 위즈워스의 서곡과 코울리지의 문학평전을 ‘낭만적 자서전’으로서 비교 분석하는 책을 썼다. 그녀의 ‘낭만적 자서전’은 주로 라캉(Lacan), 데리다(Derrida)와 같은 탈구조주의자들의 이론에 기초하여 ‘자아’의 실체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들의 ‘읽기전략’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되었다. 그녀의 분석은 자서전의 구조적 특성을 해명하는 것보다는 탈구조주의의 이론을 이용하여 두 작품에 분석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Coleridge, Wordsworth, and Romantic Autobiography: Reading Strategy of Self-Representation* (Madison: Fairleigh Dickinson UP 1995) 18~36면 참조.

25) 엘리엇(T. S. Eliot) 시의 본문 인용은 T. 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8), 산문은 T. S. Eliot,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32)에 의함.

그리고 그러한 ‘회상’과 ‘재구성’의 기제를 주관적 인식주체가 역사의 시간성을 극복하는 낭만적 상상력의 작동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엘리엇 시를 자서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시도처럼 보인다. 엘리엇에게 낭만주의적 자서전이 구축하는 시인의 정체성, 즉 시인의 ‘개성’(personality)은 시적 창조의 주체이자 목표가 아니라 해체와 도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시인의 경험과 정서적인 반응이 합쳐져서 낭만주의 시인의 성품 내지 개성을 만들고, 그러한 성품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낭만주의 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엘리엇에게 있어서 좋은 시인은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서와 경험을 반응시켜서 새로운 정서 내지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촉매’같이 작용해야 한다.²⁶⁾ 엘리엇가 상정하는 시인의 이상적 자아는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반응하며 주관적 정서의 주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객관적 인식의 매체로 작용해야 한다.

엘리엇은 자신의 ‘물개성적’ 시인론을 입안하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위즈워스의 “평온함 속에 되새겨진 감정”과 대비했지만(21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즈워스에게 있어서도 ‘정서’나 ‘감정’이 뭉쳐서 저절로 시인의 ‘개성’이나 ‘성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시가 단지 ‘정서가 흘러나온 것’이거나 ‘개성’이 직접 표현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위즈워스의 『서정담시집』 서문²⁷⁾을 꼼꼼히 읽어보면 위즈워스는 결코 자연 발생적인 감정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엇의 주장대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21면) 시쓰기를 옹호한다.²⁷⁾ 엘리엇은

26) T. 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13~22면.

27) 예를 들어 시를 “강력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흐른 것”이라고 정의한 대목의 맥락을 보라. 그 대목은 사실 양보구문에 들어 있고, 위즈워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긴, 깊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만 좋은 시가 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흐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부

자신의 입론을 위하여 워즈워스의 시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한 면이 있다. ‘정서’나 ‘감정’이 시인의 ‘개성’ 내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재료일 뿐, 시의 내용이 되는 ‘정서’는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조성된 정서가 아니라 시인의 기억작용 속에서 복잡한 반성적 사고 내지 명상의 단계를 거쳐 새로이 생성된 이차적(Secondary) 정서이다. 엘리어트가 말하는 워즈워스의 시인의 ‘개성’은 정서적 반응의 집적물로 단순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원체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반성으로 사고하면서 점차적으로 획득해나가는 자기인식이며, 시는 (특히 이 글의 주제인 고백시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해야 옳다.

그렇다면 워즈워스가 추구하는 시인의 자기인식과 엘리어트의 몰개성적 시인의 자기인식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워즈워스의 현재 화자가 자서전적 ‘회고’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역사적 실존을 넘어서는 주관성의 획득이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자의적 인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식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향하며, 워즈워스가 낭만적 상상력을 통해 꿈꾸고, 시적 사유를 통해 구현하려 하는 근대적 자아는 그러한 보편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어트 역시 그러한 보편적인 예술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워즈워스의 ‘낭만적’ 충동을 어느정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몰개성적’ 시의 화자 역시 워즈워스가 형상화한 근대적 자아의 또다른 형상이다.

「제이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는 엘리어트의 자기성찰적 사유를 잘 보여주는 시이다. 이

과될 수 있는 시가 보통 이상의 감수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 씌어진 적이 없었다. 계속해서 홀러드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변화되고 방향지워지기 때문이다. ...” W. Wordsworth, *Lyrical Ballads*, 62면.

시의 화자는 소심한 중년의 남성으로서 창 안쪽에서 ‘미켈란젤로’를 소재로 얘기를 나누는 여인들에 대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의식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화자의 관심은 중년의 육체적 무력감으로 인해 좌절되는 자신의 성적 욕망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들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들을 다 안다.
그 저녁들과, 아침들과, 오후들을 다 안다.
나는 나의 삶을 티스푼으로 썰다.
나는 먼 쪽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로
뒤끝이 희미해지는 그 목소리들을 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그리고 나는 그 눈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들을 다 안다.
공식화된 말들로 나를 고정시키는 그 눈들을.
그리고 내가 편에 꽂힌 채 버둥거리며 공식이 되면,
내가 편에 꽂혀 벽 위에서 꿈틀거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나의 나날들과 나의 방식들의 조각들을 뺄어내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찌 감히? (49~61행)

화자가 그 여인들을 ‘안다’고 호언하는 것은 그의 성적 무능력에 대한 자의식적 표현이지만, 화자가 진정으로 절망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삶을 ‘티스푼’으로 계량할 만큼 뻔하게 개관하고 있다는 과장된 자신감은 실상 알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표현이다. 화자가 그녀들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듯, ‘티스푼으로 자신의 삶을 썰다’는 것도 물론 거짓이다. 그녀들과 차를 마시며 자신과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다는 것은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하듯, 나의 삶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인가?

워즈윅스의 화자는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주인공의 삶이라는 역사적 공간으로 들어갔지만, 엘리엇의 화자는 ‘창 너머’에 있는 여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역사적 공간에서 자신을 규정하기를 거부한다. 엘리엇의 화자는 과거를 다 ‘안다’고 치부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현재로 고정시킨다. 왜냐하면 그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역사화하기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 관계를 갖는다면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의 시선은 ‘티스푼’으로 계량하듯, 나의 삶의 의미를 판에 박은 공식으로 이해할 것이고, 그러한 관습적인 해석과 분석에 대항할 힘이 화자에게는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에 붙잡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각난 나의 역사적 체험을 토로한들 그것이 그들의 ‘공식’에 들어맞을 리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 대한 화자의 욕망은 염치없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그것은 자신을 바다 속을 기어다니는 게의 집게발로 환치시키면서 억누른다(73~74행).

여인들에 대한 욕망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서전적 탐구의 충동이다. 화자는 역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을 “선지자”(83행)로, 죽음의 비밀을 꿰뚫고 있는 “라자로”(Lazarus, 94행)로, “햄릿”(111행)으로 투사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세일 뿐, 그의 의식에 맴도는 자기표현은 “그것이 전혀 아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냐”(109~110행)라는 말뿐이다. “나는 늙어간다”(119행)는 이 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화자의 솔직한 자기고백이지만, 그러한 고백이 자기인식에 도달할 유일한 희망은 현실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관념의 바다 속에서 “바다소녀들”과 상상적 관계로 환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프루프록의 연가」의 화자는 여인들에 대한 성적 욕망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끝내 자신의 관념 안에 갇힌 채 자서전의 ‘주인공’과 만나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부정

적인 자기성찰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관념 속에 갇힌 자아가 자기를 규정하고 인식시켜줄 타자와의 교류와 통합을 성욕만큼이나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이른바 모더니즘의 고립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지만, 고립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관습이 되어버린 ‘공식화된 말들’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타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의외로 대단히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연작시 『네 사중주』(*Four Quartets*)²⁸의 하나인 「리틀 기딩」(*Little Gidding*)은 국교로 개종한 후기 엘리엇의 달라진 자기인식을 잘 보여준다. 「리틀 기딩」은 『네 사중주』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진 장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리틀 기딩은 1625년에 니콜라스 페라르(Nicholas Ferrar)가 영국국교의 공동체를 세웠던 곳이며, 청교도 혁명시 파괴되었다가 19세기에 다시 복원되었는데, 엘리엇은 2차대전이 진행되던 당시 런던의 야경 임무를 수행하던 경험과 리틀 기딩을 연관시키면서 ‘회고’하고 ‘재구성’한다. 낭만주의적 역사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관념에 갇혀 있던 엘리엇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예이쯔(W. B. Yeats)나 스위프트(Jonathan Swift) 같은 선배시인의 ‘유령’으로 형상화한다.

나는 갑자기 어떤 죽은 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알았었지만 잊어버린, 반쯤 기억나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기도 한 그 모습을.
 갈색으로 그을린 모습에는
 친밀하기도 하고 누군지 알 수 없기도 한
 친숙한 모습의 복합 유령의 눈이 있었다. (92~96행)

28) 이 글에서의 맥락과는 다르지만 올니도 『네 사중주』를 자서전의 맥락에서 분석했다. J. Olney, *Metaphors*, 260~316면.

화자는 문학적 스승들을 만나 복화술사처럼 그들의 말을 스스로 대변하며 대화를 나눈다. 화자는 자신의 시적 정체성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작년의 말들은 작년의 언어에 속하고, 내년의 말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기다린다”(118~19행)며 과거에 연연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엘리엇은 그들의 말대로 그의 문학적 과거인 선배시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화자의 “평생에 걸친 문학적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오랫동안 간직되어온 선물”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첫째, 마치 몸과 영혼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그림자뿐인 과일의 쓰디쓴 맛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마법도 없이 꺼져가는
감각의 차디찬 마찰.
둘째, 인간의 어리석음에 일부러 노하지 않고,
더이상 재미도 없는 것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
마지막으로,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다시 행하는 뼈를 깎는 고통,
즉 나중에 드러난 부끄러운 동기들과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잘못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깨닫는 것.
바보들의 칭찬은 뼈아프고, 명예는 수치스러운 법. (130~43행)

엘리엇의 화자가 읽어낸 자신의 시적 과거는 회한과 고통의 기록이며, 그것은 “정련의 불꽃”(145행)으로 태워버려야 한다. 런던이 공습의 파괴를 딛고 부활하듯이 그의 자아도 “또다른 양식으로 새로워지고, 변모되어야”(165행) 한다. 엘리엇가 발견한 새로운 자아는 위즈워스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 실존을 초월하여 영속적이며 보편적인 존재를 획득한다.

우리는 죽는 자와 함께 죽는다.
 보라, 그들은 떠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간다.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태어난다.
 보라 그들은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과 동행케 한다.
 장미의 순간과 주목(朱木, yew tree)²⁹⁾의 순간은
 똑같이 지속된다. 역사 없는 국민은
 시간에서 회복될 수 없다. 역사는
 시간 없는 순간들로 이루어진 양식(樣式)이므로. (228~35행)

엘리어트는 「프루프록의 연가」에서 품었던 타자와의 교류와 통합을 낭만적 역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실현한다.

4. 근대적 자서전의 형식과 논리

자서전은 근대적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세계와 구분하여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세계와 자신 사이에 틈새를 발견하고, 그 틈새를 넘어 양자간의 동질성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바로 그 과정이 자서전 쓰기이다. 올니가 말하듯 자서전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스스로의 질서를 확립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근대적 자서전은 기독교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인간과 세계 간의 틈새가 어느 때보다 커졌을 때 생겨났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세계의 틈새를 인간의 의식의 분열로 형상화하고 분열된 의식(‘화자’와 ‘주인공’)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통하여 재통합을 지향하는 운동을 서사적 구조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재통합을 도모하는 과정과 방법은 시대와 문학사조마다 다르

29) 서양에서는 무덤에 주로 심는 나무.

지만, 근대적 자서전은 ‘화자’의 자서전적 ‘회고’와 ‘재구성’이 ‘주인공’의 삶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창의적 ‘회고’와 ‘재구성’은 일종의 초월적 경험을 통하여 ‘화자’를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로 확립한다. 그러한 면에서 근대적 자서전은 낭만주의 문학에서 그 전형적 형태를 획득한다. 엘리어트의 모더니즘 시는 이러한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의식적인 반동으로 씌어졌지만 그 역시 자아의 고립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화자’의 창의적 ‘회고’를 통하여 그 초월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자서전의 논리를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ubverts the prevalent differentiation between Indian savagism and white civilization. Finally, the autobiography envisions an alternative utopian history in which the Indians and the whites are essentially equal, a history that has not materialized in actual American history.

Modern Autobiography and Poetic Confession:

Rousseau, Wordsworth, and Eliot

Chankil Park

Autobiography is an account of a man's private life written by himself. That the narrator, the author's present 'writing' self and the protagonist, his past 'written' self are the same person makes it problematic to define the autobiography as *genre*; it is neither a historical record nor a literary fi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l logic of autobiography in Rousseau's *Confessions*, the first classic example of modern autobiography; the author's identity is 'constituted' rather than simply 'represented' by the narrator's 'recollection' and 'recapitulation,' which reveals that the author's very act of writing means much more than what has really happened to him or her in the making of a modern autobiography. Rousseau's 'recapitulation' seldom leads to a reasonable account of a past significant event but becomes more often a digressive memory of a particular pleasurable event that is found a pivotal moment both in maintaining the autobiographical narration itself and in holding together his fragmented selfhood. Rousseau's regressive recollection of such kind, in fact, has been a formal paradigm for many later writings of autobiographical nature from Wordsworth to Eliot. Wordsworth's *The Prelude*, his life-long autobiographical project, is the most faithful poetic scion of Rousseau's Confession. The episodes of "spots of time" impressively reenact Rousseau's pleasurable 'recapitulation' bringing about an equally redemptive sense of restored selfhood to Wordsworth. Eliot's poetics of 'impersonality' was apparently intended as an antidote to Wordsworth's poetic theory of injudiciously personal nature. But Eliot himself is found to be another inheritor of Rousseau's autobiography in some of his poems such as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and "Little Gidding."